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5호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하얼빈 AG, 열전 마치고 폐막...한국 金 16개로 종합 2위

고봉준 중앙일보 기자

대한체육회 마지막 이사회

"선수지도자지원부X꿈나무육성부X마케팅실 신설" 유승민 집행부, 밑그림 나왔다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손감독 등 SON 축구아카데미 지도자 3명 폭력비위 인정

스포츠윤리센터, '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코치에 징계 요구

이재은 이데일리 기자

그동안 부조리 등 제보받고 자료수집...지도·감독예산 등 실태점검

'체육계 부당관행 근절'...감사원, 대한체육회 현장감사 착수

이기림 뉴스1 기자

일부 단체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 선거 몸살

권정식 한국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2025년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4시
2.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3. 참가대상: 체육시민연대 회원, 체육 활동 및 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
4. 주요 안건
 - 개회 및 인사말
 - 2024년도 활동 및 재정 결산 보고
 -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발표
 - 기타 안건(회원 제안 안건 및 자유 토론)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총회 개최 7일 전(2월 18일)까지
sports-cm@hanmail.net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우리 조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이

체육시민연대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체육시민연대

하얼빈 AG, 열전 마치고 폐막... 한국 金 16개로 종합 2위

아시아인들의 겨울스포츠 축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14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시아 34개국 1300여명의 선수들이 수놓은 이번 대회는 지난 7일 개막해 모두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한겨울의 열전을 펼쳤다.

2017년 삿포로 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이번에도 설상과 동계에서 두드러지는 성적을 내며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강국임을 입증했다. 마지막 날 컬링 남녀에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아이스하키 남자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총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를 합작하고 2위 자리를 지켰다. 최종 우승은 금메달 32개를 따낸 중국이 차지했고, 일본이 금메달 10개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성과를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과 스노보드와 스키 등 설상 종목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 ‘효자 종목’ 증명한 쇼트트랙



한국 쇼트트랙은 하얼빈에서 아시아 최강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가장 먼저 열린 혼성 2000m 계주에서 박지원과 장성우·김태성·김건우, 최민정과 김길리·심석희·노도희가 우승을 합작했고, 최민정은 여자 500m와 1000m 금메달을 더해 이번 대회 3관왕으로 등극했다. 또, 김길리가 1500m에서 우승해 한국이 여자 개인전을 싹쓸이했고, 남자는 박지원과 장성우가 각각 1500m와 1000m를 제패해 모두 6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1999년 강원 대회, 2003년 아오모리 대회와 같은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다.

가장 큰 수확은 역시 최민정의 부활이다. 2014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최민정은 2023년 3월 세계선수권을 끝으로 돌연 태극마크 반납을 선언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잠시 재충전하기 위해 내린 결단. 이 기간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안식년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올 시즌 복귀하자마자 빠르게 기량을 되찾았고, 이번 대회에서 쇼트트랙 여제로서의 위용을 다시 뽐냈다. 최민정은 “쉬는 동안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심적인 여유도 많이 되찾았다”면서 “내년 동계올림픽에선 중국은 물론 캐나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야 한다. 이들을 넘어서기 위해선 결국 나 스스로가 완벽해져야 한다. 남은 1년간 동료들과 치열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 숙제도 낳았다. 혼성 2000m 계주에서 우승한 한국은 남녀 계주는 모두 입상하지 못했다. 경기 막판까지 선두로 나섰지만, 연달아 중국 선수에게 리드를 뺏긴 장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윤재명 대표팀 감독은 “최민정이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종합대회가 처음인 박지원과 김길리, 장성우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도 “계주는 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다. 동계올림픽까지 1년이 남은 만큼 선수들과 논의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선 깜짝 스타가 탄생했다. 2005년생 셋별 이나현이다. 여자 100m 경기에서 선배 김민선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 빙상계를 놀라게 하더니 팀 스프린트 금메달과 500m 은메달, 1000m 동메달로 모두 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빙속에서 2005년생 이나현이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면, 남자 빙속에선 1988년생 이승훈이 새 역사를 썼다. 남자 팀 추월에서 후배인 정재원, 박상언과 은메달을 합작해 통산 9번째 메달을 신고하고 역대 한국 선수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로 등극했다. 이승훈은 “세월의 무게는 야속해 폭발력은 예전 같지 않고, 근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는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 심지어 다른 일을 하면서 빙속 주자로 활약 중이다.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여전히 힘을 얻는다”고 했다.



다른 빙상 종목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피겨 스케이팅에선 남녀 싱글 차준환과 김채연이 역대 최초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이란 쾌거를 썼다. 차준환은 쇼트 프로그램까지는 세계랭킹 3위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에게 뒤진 2위였지만, 프리 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마찬가지로 김채연도 쇼트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던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를 프리 스케이팅에서 꺾었다. 특히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임을 확인한 차준환은 “금메달이 아니었어도 만족했을 경기였다. 그만큼 내 연기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른쪽 발목 부상에서 빨리 회복해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으로 기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선수단 3명의 소수정예 인원을 파견한 북한은 피겨 스케이팅 페어에서 럼대옥-한금철이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부터 이어진 피겨 스케이팅 페어 3개 대회 연속 메달 행진이다. 2011년 리지향-태원혁이 동메달을 따냈고, 2017년 삿포로 대회에선 럼대옥과 김주식이 동메달을 수확했다. 럼대옥은 2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 선수단은 이번 대회 내내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경직된 남북 관계를 대신 드러내기도 했다.

◆금빛 전망 밝힌 스노보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난 스노보드는 2000년대생들의 금빛 질주를 앞세워 전진을 알렸다. 주인공은 2006년생 이채운과 2008년생 김건희다. 둘은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과 하프파이프를 나란히 제패하며 설원에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선수지도자지원부X꿈나무육성부X마케팅실 신설" 유승민 집행부, 밑그림 나왔다

"선수 중심, 지도자 중심의 체육회."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꿈꾸는 새로운 체육의 시대, 대한체육회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제38차 이사회를 열었다. 제41대 이기흥 집행부의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날 마지막 이사회에 이기흥 회장은 없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전 IOC위원·전 대한탁구협회장)에게 38표 차로 낙선한 직후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오영 회장 권한 대행(경남체육회장)이 진행했고 이사 35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직제규정 개정안이 올라왔다. 2월28일 첫 대의원총회를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유승민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물이다. 현행 5본부 3실 19부 2팀 1사무소의 직제를 6본부 5실 1센터 18부로 개편하는 안이다. 기획조정본부, 체육진흥본부, 생활체육본부, 국제본부, 훈련본부 등 기존 5개의 본부에 '선수촌운영본부'를 신설했고, 감사실, 홍보실, 공정체육실 등 기존 3실에 비서실, 마케팅실을 신설하고 공정체육실과 법무팀을 통합해 공정법무실을 뒤 5실 체제로 개편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된 IOC위원 지원부가 비서실이 됐고 스위스 로잔 국외연락사무소는 직제에서 제외됐다.

마케팅실을 회장 직속으로 둔 것은 스포츠 마케팅, 대한체육회의 자생력 확대에 대한 유 회장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발로 뛰는 현장형 행정가인 유 당선인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대기업, 중견기업 스폰서십을 유치하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또 선수촌내 훈련본부 산하에 선수지도자지원부와 꿈나무 육성부를 신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두 아들이 유소년 축구선수이고 4번의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섰고, 삼성생명에서 선수, 코치로 활약한 만큼 유 당선인은 후배 선수, 선후배 지도자의 인권과 복지에 진심이다. 유 당선인은 지난 14일 진천선수촌 지도자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기존 스포츠의과학부를 선수촌장 직할 메디컬센터로 개편해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의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촌장에게 동계훈련센터 운영 및 동계종목 관리, 지원 역할을 부여해 역할과 업무를 명확하게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코치에 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12일 스포츠윤리센터(센터)에 따르면 센터 측은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날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치·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체육 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권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뒤 이같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손 감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한 코치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소속 팀이 해당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지 못하자 옆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했다.

진술에는 피해 아동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도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와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한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 부당관행 근절'... 감사원, 대한체육회 현장감사 착수

감사원은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부당운영 논란이 제기된 대한체육회에 대해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이날부터 4월 4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는 물론 선수훈련·활동 지원과 부상·인권침해 등에 따른 보호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과 적시성 논란이 불거진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 등의 지도·감독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언론에서 제기된 권력독점과 예산 부당집행 의혹 등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의 구조적 문제, 보조금·후원금 등 예산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체부의 관리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게 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대한체육회 운영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자료수집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나서기 전 서면 및 대면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감사원은 지도자·선수 선발 과정의 불투명 또는 부당 개입, 선수훈련·활동지원 과정의 불공정 또는 부당 계약,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의 보조금·후원금 유용 또는 부당 집행 등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 운영상 비리 제보도 받아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대한체육회도 문체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파리 올림픽 참관단 운영을 비롯해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을 문제삼았다.

대한체육회도 지난해 10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생활 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국회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체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고의로 사업승인을 지연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체육회 점검을 진행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논란이 된 이기흥 전 회장은 지난달 치러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밀려 낙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는 물론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 선거 몸살

대한체육회 산하 일부 경기단체가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과정의 공정성 논란에다 일각에선 금품살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0일 치러진 대한파크골프협회장 선거 때 금품살포가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당시 잡음에도 불구하고 A당선자는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고 회장 직무를 수행중이다.

다 끝난 것 같던 회장선거 논란은 낙선자 일부가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점화하고 있다. 전 강원도 C회장은 당선자가 운동원을 시켜 금품과 자리 제의를 하면서 현금 3,000만원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당선자 측 한 운동원도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로폼에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선거과정에 금품을 돌린 사실이 없으며 강원도 회장에게 금품과 자리 제의를 한 내용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실시된 대구 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당선자의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돼 대구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경북육상연맹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대의원 측의 고발과 함께 경북체육회도 감사에 나섰다.

"역대 회장 중 일부가 임기중에 중도사퇴한 데에는 특정 임원의 전횡이 있었다", "전국체전 출전 선수 훈련비를 회장과 사무국장이 착복했다", "울진, 구미에서의 도민체전을 위한 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 때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등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대의원 민원이 접수돼 경북육상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영위 구성 규정위반과 훈련비 부당 수령 등 제기된 민원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체육단체장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할 때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중 '테니스·킥복싱만 인권 규정 無'

https://www.nocutnews.co.kr/news/629367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214033650

순천시, 고향사랑 기금으로 장애복지·생활체육 사업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7066100054?input=1195m>

전국동계체육대회에 경기 학생 선수 447명 출전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691876>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상부에 '체육시설·공원' 만든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5021713084994409>

통일부, 탈북민 건강증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OU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7_0003067963

“어리다고? 체육 인생 35년...건강한 소통에 앞장서겠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5449132/1>

강원자치도, 2025년 체육 사업 확대 '경쟁력' 강화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95425?ref=naver>

청주시체육회, 계약 불발 업체 디자인 '무단 도용' 물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7_0003068468

하얼빈 아시안게임 성공적 마무리와 새로운 체육 협력의 시작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888>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